

쿠키와 살인사건, 그 달콤쌉싸름한 만남

글|오지영(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1부)

사실 이 '살인사건' 시리즈를 소개하기에 앞서 다소간의 걱정과 우려로 조금 주춤했음을 고백해야겠다. “초콜릿칩 쿠키 살인사건” “딸기 쇼트케이크 살인사건” “블루베리 머핀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책제목을 보고 유치한 아동용 연재물쯤으로 생각해버린 않을지, 스텔과 치밀함을 주무기로 하는 정통 추리소설 애호가들에게 못매를 맞는 것은 아닌지, 연초부터 '살인사건' 운운하는 책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처사는 아닌지... 하지만 곧이어 작년 삼순이의 영향으로 파티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예전 같으면 아동용 공상소설쯤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던 헤리포터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지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다. 게다가 이 살인사건 이야기는 결코 피가 낭자하거나 음침한 뒷골목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사소한 일도 금방 소문이 퍼지는 작은 마을 레이크 에덴에서 '쿠키단지' 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의 한나 스웬슨이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쿠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평범한 파티쉐였지만 살인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만든 파이나 쿠키가 발견되면서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때마다 한나는 자신의 따뜻한 성격과 직접 구운 맛있는 쿠키를 이용해 경찰도 파악하지 못한 사건의 깊숙한 부분을 알게 되며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곤 한다.

이런 추리소설을 이른바 '코지 미스터리(cozy mystery)' 라고 한다. 코지 미스터리란 말 그대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추리물이다. 추리 독자들 중에는 코지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오인하는 독자들이 많다. 그러나 코지는 미스터리 장르 중에서도 꽤 오래된 장르이다. 작은 소도시나 마을의 일상 속에서 우연찮게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통해 인생의 아이러니와 우화를 유쾌하게 전하는 형식으로, 애거서 크리스티의 마플 양이나 도로시 세이어스의 피터 램지 경이 코지 미스터리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안읽어봤다면 '제시카의 추리극장'이란 TV 시리즈를 생각하면 될 듯.



초콜릿칩 쿠키 살인사건 (해문)

이 시리즈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미국의 한 작은 마을의 구성원이 되어 아침에는 하나의 '쿠키단지'에서 맛있는 쿠키를 먹고 근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된다. 게다가 놀란 동생에게 초콜릿을 입힌 체리 쿠키를 먹으라고 권하거나 누군가를 방문할 때 으레 쿠키 한 봉지를 들고 가는 설정을 읽다 보면 살인사건이 주는 스산함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 속에 군침 도는 쿠키나 파이 등을 삽입하는 것 외에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작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레시피. 1편 『초콜릿칩 쿠키 살인사건』에는 쿠키 조리법, 2편에는 케이크 조리법, 3편에는 머핀 조리법, 4편에는 파이 조리법... 이런 식으로 8편의 이야기에 각각 7개씩 총 56개의 조리법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3편까지 출간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요리법들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는 이가 많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곳곳에 등장하는 쿠키 이야기와 요리법, 그리고 주인공 한나의 다소 어설픈 추리는 가슴 두근거리는 박진감과 치밀한 추리를 원하는 독자에게 있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딸기 쇼트케이크나 살구빵 푸딩, 레몬 바 쿠키들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다. 한나를 두고 벌이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관 마이크 킹스턴과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치과 의사 노먼 로드와의 신경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달콤한 쿠키와 사랑이야기, 작은 마을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연초엔 모두들 거창한 계획이나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난 오히려 이런 작은 행복을 소개하고 싶었다. 조금은 유치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벉락치듯 짜릿한 기쁨이나 진저리치게 행복한 순간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랑하는 친구와 수다 떨며 맛보는 달콤한 쿠키와 향긋한 커피 내음,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을까. ♪